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5년 주님의교회 표어



495
2025.1.19.
신년호

오늘의 말씀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험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_ 이사야 62:4

오늘의 주요 기사

- | | | | | | |
|---|------------|-----|-------------|----|------------|
| 2 | 하나님의 선교 특집 | 5 | 유소년숲 성탄음악예배 | 10 | 청년부 연탄봉사 |
| 3 | 2025 함글함글 | 6-7 | 종교개혁지 탐방 후기 | 10 | 어와나 성경퀴즈대회 |
| 4 | 신년특새 스케치 | 8-9 | 교역자 부임인사 | 11 | 십자말씀이 |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새 날을 기도로 시작하고

2025년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걸어가고 때로는 주님의 등에 업혀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쉬었던 국수 봉사가 다시 시작이 된 지 3년을 맞았습니다.

30여년을 이어온 국수의 맛이 제대로 이어질까? 새벽에 봉사자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나라 정세이지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게 하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며

성도들이 드실 국수 육수를 만들고 국수를 삶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 뒷정리를 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신형섭 장로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 특집 1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받은 가정(여호수아 24:15)

2025년 함글함글은 올해 교회 표어인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에 맞게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이야기’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과 선교적 가정의 의미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은 가정의 영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며, 자신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은 단순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가정이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일상을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사역을 하는 것을 넘어서, 가정 내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와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받은 가정의 특징

선교적 사명을 받은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준 고백처럼,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인정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 예배와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자녀와 가족 구성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합니다. 이러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어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받은 가정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나눔뿐 아니라, 시간과 재능을 통해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단순한 물질적 도움에 그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나누는 관계적 나눔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통해 이웃과의 신앙적 교류를 이어가거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선교적 사명을 받은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가정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믿음의 끈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가족 구성원이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계획과 문제를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선교적 사명을 받은 가정은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선교적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는 자녀들과 함께 선교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선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선교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활동이 이러한 리더십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적 가정을 세우는 실천 방안

가정 예배는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서로의 영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단순한 성경공부 시간이 아닌, 가족의 영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적 가정은 지역사회의 필요를 민감하게 살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후원하거나, 노인 요양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은 지역사회의 영적 필요를 발견하고, 이를 위한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을 주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가정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도구가 됩니다.

현대 가정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나 선교 단체를 지원하거나,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등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 활동과 선교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생활화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이 글로벌 선교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온라인 선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선교사와 직접 교류하며 그들의 필요를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교적 가정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선교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이웃뿐 아니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들에게 환영과 사랑을 보여주는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다가가는 태도는 복음의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결론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질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교적 비전을 기억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형이 될 것입니다.

함글함글

홍보출판부
함즐함울

2025년 함즐함울은 이렇게 발행됩니다.

발행예정일 및 주요 내용(총 17호)

함즐함울은 대략 3주 간격으로 발행됩니다. 2024년 송년호가 12월 29일에 발행되어 2025년 신년호는 그 이후 3주가 지난 1월 19일에 발행되었습니다. 이후 발행예정일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예정일	호	주요내용
2월 9일	496	청소년숲 겨울수련회, 제직수련회, 제직부서 편성 등
3월 2일	497	유소년숲 및 청년부 겨울수련회, 사순절 등
3월 16일	498	겨자씨인도자수련회 등
4월 6일	499	고난주간특새 등
4월 20일	500	500호 기념 특집
5월 18일	501	고난주간, 부활절, 피택자선거, 무지개잔치, 장애인 / 어버이 / 청년 / 교사주일 등
6월 8일	502	피택자선거결과, 양육클래스 후기 등
6월 29일	503	창립기념호, 잇딤나무 성지순례, 유아숲 여름사역소개 등
7월 20일	504	유소년숲.청소년숲 여름사역 소개 등
8월 10일	505	유아숲/청소년숲/유소년숲 여름성경학교 등
8월 31일	506	청년부 여름수련회, 양육클래스 개강 등
9월 21일	507	겨자씨인도자수련회 등
10월 19일	508	(추석연휴로 4주 발행), 추수감사, 종교개혁 등
11월 9일	509	사역부서 소개 등
12월 7일	510	(임직식 일정으로 4주 발행) 양육클래스/세움학당 후기, 임직자 소감 등
12월 28일	511	송년호, 성탄가족예배, 성탄예배 등

* 일정 및 주요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고정 칼럼

2025년 교회 표어인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에 맞게 주제를 정해 2면에 고정 칼럼을 게재합니다. 칼럼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양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제	말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받은 가정	여호수아 24:15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정	창세기 1:28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시편 119:105
기도로 하나되는 가정	에베소서 6:18
화목한 가정의 비결	요한복음 13:34
선교적 가정의 사명	마가복음 16:15
가정에서 시작되는 섬김	요한복음 13:35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	데살로니가전서 5:18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가정	잠언 22:6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가정	마태복음 5:14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정	마태복음 22:39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는 가정	시편 32:8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정	에베소서 6:11
환경을 돌보는 청지기 가정	시편 145:10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	요한복음 14:1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베드로전서 2:9

500호 특집

4월 20일에 발행예정인 함즐함울은 500호를 기념하며 500호 특집호로 발행됩니다. 교회의 소식지로서 교회 안팎의 여러 소식들을 담은 함즐함울의 과거를 돌아보고 주님의교회 모두가 함즐함울 500호를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즐함울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 나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500호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독자층 확보를 위한 지면 기획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까지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해 연령대에 맞는 유익한 내용을 담은 지면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은 유소년숲 친구들이 볼만한 글이나 그림을 담거나 직접 쓴 글이나 그린 그림 등을 소개함으로써 유소년숲 친구들도 즐길 수 있는 지면을 기획하고 이후 청소년과 청년들의 페이지로 점차 확대해서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보고 또 만들어가는 함즐함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즐함울 이용하기

함즐함울의 발행예정일을 기록해두었다가 각 사역부서에서는 사역을 소개하거나 사역을 마친 후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가정, 겨자씨 등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간증, 신앙과 관련된 책이나 영화 등을 보고 난 소감, 함즐함울에 있는 글을 읽고 난 소감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함즐함울에 바라는 소망들을 보내주셔도 환영합니다. 함즐함울은 그 자체로 역사의 기록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신앙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고를 함즐함울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편집회의를 통해 지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즐함울을 만드는 사역에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가로, 기자로, 칼럼리스트로 함께 하실 분도 환영합니다.

함즐함울

2025
홍보출판부
사역자 모집

함즐함울, 문서선교 출판물, 달력 및 각종 안내지 제작
홍보출판부는 교회 공동체 안팎의 바람직한 소통과 문서선교를 위한 오프라인 모든 활동을 사역의 목적으로 합니다.

하는 일

<함즐함울> 간행
문서선교 간행물 발행
달력 및 안내 홍보지 제작
문예 공모 행사 주관

필요한 은사

문서편집을 할 수 있다.
귀는 크고 입은 작다.
글을 써보고 싶다.
이 글씨를 읽는데 어려움이 없다.
책을 읽고 싶다.
일찍 잘 일어난다.
이미지를 잘 만들거나 찾는다.

모집분야 : 리포터, 칼럼니스트, 디자인, 콘텐츠 기획

문 의 | 어진원 안수집사(010.2951.4487)

함즐함울 읽기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신년특별새벽기도

새해, 말씀 붙잡고 제대로 살기로 결단한 나의 이야기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우리는 새해를 맞으며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웁니다. 체중 감량, 독서, 경제적 목표 등 각자의 리스트가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나에게 올해의 결단은 분명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살아가자." 하지만 이 결단이 얼마나 도전적인 일인지, 그리고 그 결단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지난 6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신앙서적이나 간증집을 읽다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마치 내 눈 앞에 펼쳐지듯 설명해 줍니다.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이 삶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던 이들의 간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생생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면 나도 모르게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런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금세 "말씀대로 살아가다"는 단어가 부담스럽게 느껴져 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언가 어려운 미션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 성경이라는 두꺼운 책을 완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새기간 김화수 담임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거대한 기적을 행하거나 완벽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 붙잡을 기회는 지금 내 앞에 있고 연약하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선택하기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결국 내 하루, 나의 한 달, 그리고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이 땅에서의 전쟁 같은 상황들은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더 많이 선택해왔던 지난날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의무감으로 읽고, 또 "그 이야기네"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읽으려 하면 잠이 오고, 묵상은 "바쁘니까 오늘은 Skip!"이라며 쉽게 지나치고 미뤄오기 일쑤입니다. 하루의 기도는 식사 기도가 전부인 날들이 많았고,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감정과 주변의 상황대로 반응하며 살아왔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내 삶은 어떨까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학교에서, 직장에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목표를 위해 밤을 새우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말씀을 붙잡기 위해 들인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최근의 사회적으로 분열의 깊이가 더해져만 가는 상황 속에서 "말씀 붙잡고 제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특새 주제는 저의 몸과 마음을 깨워 기도회의 자리로 안내해주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실생활에서 시작된다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들은 설교 중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한 러시아 연극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연극에 출연했던 '예수'의 역할극을 했던 주연 배우(알렉산더 로스토프제브, Alexander Rostovzev)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낭독하다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 연극을 멈추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의 삶이 변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동안 말씀을 머릿속으로 또는 하나의 훈계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실제 내 삶에서는 실천하고 반영해보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로스토프제브처럼 나도 말씀을 붙잡는다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 변화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통독을 통해 나는 말씀을 조금씩 더 가까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을 성경 묵상으로 열고, 잠들기 전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놀랍게도 작은 순종이 내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업무에서 트릭을 쓰지 않고 정직하고 올곧은 선택을 하게 되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말씀에 따라 작지만 진실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 읽고 지나가는 텍스트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임을 경험했습니다.

결단: 말씀 붙잡고 제대로 살겠습니다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나의 결단은 단순히 한 해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 속에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된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로서 읽는 글이 아니라, 나를 이끄는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걸음을 말씀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며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 우리의 결단이 날마다 커져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며,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선택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게 주신 믿음의 결단이 주께 드리는 나의 삶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글함글



유소년
성탄음악예배

따뜻했던 성탄 찬양의 울림, 아이들의 목소리로 전한 사랑의 메시지

지난해 12월 25일, 시온찬양대 주관으로 열린 성탄음악예배는 유소년부와 청년부가 함께 참여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한 더욱 풍성한 무대가 되었다. 공연 당일의 감동과 연습 과정의 열정을 전하기 위해 칸타타에 참여한 유소년부 아이들과 지도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아이들이 전한 찬양의 기쁨과 도전이 함께한 성탄 준비

이은유(초3) 어린이는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공연하는 긴장되고 걱정도 되었지만, 즐거운 마음이 더 컸다”고 말했다. 율동과 수어를 배우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시온찬양대와 함께해서 소리가 더 웅장하게 들렸다”며 무대 경험에 대한 깊은 감동을 전했다.



김지율(초6) 어린이는 “동생들과 함께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매주 주일이 기다려졌다”며 연습 과정의 즐거움을 강조했다. 특히, 믿지 않는 외조부모가 예배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성탄음악예배로 전한 복음의 감동적인 순간을 공유했다.

이지유(초4) 어린이는 “힘든 연습이었지만 선생님들과 친구들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공연을 마친 후에는 “뿌듯함과 행복감, 그리고 연습이 끝난 뒤의 허전함”을 느꼈다며 내년에도 또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주안(초5) 어린이는 “율동을 배우는 것이 가장 재미있었다”며 크리스마스 무대가 좋은 추억으로 남았음을 밝히면서 “다음에도 또 참여하고 싶다”는 강한 열정을 보이기도 하였다.



학부모들이 전한 감사의 마음

성탄음악예배의 감동은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깊게 전해졌다. 이상호(초4) 어린이의 어머니는 “상호도 몇 번을 아쉽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들도 모두 장하고 너무 행복한 음악예배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라며 감사를 전했다.

강주안(초5) 어린이의 어머니는 “선생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무대가 정말 너무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아이가 매주 연습 시간을 기다리면서 행복해했어요”라고 전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는 연습이 없다고 생각하니 뭔가 허전할 것 같네요”라며 연습 과정에서 가져다준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 전했다.

지도 선생님의 헌신과 특별한 목표

현재 아트홀 등에서 어린이들 성악과 합창을 지도하고 계신 설혜신 집사님은 이번 성탄음악예배의 유소년부 총지도를 맡으셨는데, 바쁜 일

정에도 불구하고 시온찬양대 지휘자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며 “2019년에도 어린이 찬양대를 지도했었던 열정이 떠올라 이번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며 당시 상황에 감격해 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두 가지 특별한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하나는 수어 찬양을 통해 장애인 사역부와 연대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장애인사역부 담당 목사님의 헌신적인 가르침 덕분에 어린이들이 수어를 제대로 익히고, 교회의 모든 성도와 하나 되는 경험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신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선물하고 싶었다”고 전하면서 매주 이어진 연습은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것을 넘어, 찬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었다.



찬양의 기쁨, 성탄의 감동

이번 성탄음악예배는 찬양의 기쁨과 감동을 온 교회에 전했다. 아이들은 성탄의 의미를 배우고 자신감을 얻었으며,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만들어낸 기쁨에 감동했다. 지도 선생님과 시온찬양대, 그리고 학부모의 지원으로 이뤄진 특별 찬양 무대는 모두에게 오랫동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찬양이 남긴 여운은 아이들의 목소리와 함께 계속될 것이다. “다음 성탄에도 또 하고 싶다”는 아이들의 소망처럼, 앞으로도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찬양의 자리가 더욱 기대된다.

유소년 칸타타 참여자 <총 26명>

(7세)김다인. (초2) 김은유, 단이엘, 오유나, 유소미, 강태이. (초3) 김아인, 김서운, 이은유, 임리연, 장다온, 전수빈, 조민재. (초4) 박서연, 신지원, 오혜련, 이상호, 이지유. (초5) 강주안, 이예인, 장다엘, 정다은, 정서연. (초6) 김지안, 김지율, 천지원.

함글함글

종교개혁지
탐방 후기

여행의 낙수(落穗)들

지난 1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종교개혁지 탐방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진행되는 종교개혁지 탐방입니다. 2025년 새 달력도 이때 다녀온 종교개혁지를 사진 배경으로 넣었습니다. 작년에 다녀오신 분의 여행문을 몇 호에 걸쳐 연재합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끼시기를 바라며, 올해 가실 분들은 기대함으로 소망하고, 모든 성도들이 올해의 종교개혁지 탐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글함글

오랜만에 유럽여행을 다녀왔다. 교회에서 10박 11일 동안 5개국(독일-체코-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을 순례하는 여정이다.

항공기는 아시아 대륙을 횡단하여 첫 번째 순례국인 독일로 향하였다. 국제선 여객기가 11,000여 km를 14시간 비행하는 동안 기내에서만 지내야 한다는 것이 답답함으로 다가왔다. 장시간 여행할 때는 동반자가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좌석에 마련된 영화였다. 외화 1편, 한국영화 3편 등 4편을 보면서 시간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음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기내식이 제공되었다. 메뉴는 대체로 한식으로 비빔밥, 쌈밥, 치킨 등이다. 나는 비빔밥을 골랐다. 플라스틱 간이 용기에다 밥에 야채와 나물을 섞고 고추장과 참기름을 짜내어 비빈다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맛도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다. 40년 전 시찰단의 일원으로 미국에 갔을 때 처음 먹었던 기내식이 떠올랐다. 어른 손바닥만한 계딱지에 으깬 감자와 맛살, 콘, 양파 등으로 꽉 채운 샐러드였는데 그 맛과 품위가 얼마나 좋았던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하이델베르크 호텔에 투숙하였다. 룸메이트는 J장로다. 최근에 임직한 장로로 교회에서는 국내 봉사부를 담당하고 있어 주차안내부 등 곳곳을 도맡아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다. 코골이를 걱정하였다. 한국 남자들은 웬만하면 이 증상이 있는 모양이다. 나도 역시 코골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안심하는 눈치다.

여행에서 가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 가이드는 여행사에서 나온 인솔자 1명과 현지에서 고용된 다른 1명이 담당하였다. 인솔자는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동행하며 교통, 출입국 수속, 숙박 등 여행 전반을 관리하고, 현지 가이드는 지역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면서 순례 지역을 안내하고 설명하였다.

독일의 가이드는 50대의 여자로서 남편과 결혼하여 독일로 유학하였으나 7년 동안에 자녀를 5명이나 출산하는 바람에 공부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냥 귀국하려니 독일어도 제대로 아는 게 없어 창피를 무릅쓰고 대학에 다시 등록하여 졸업한 후 이제는 여행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가 인상 깊다. 40대 중반의 여인이다. 유학 왔다가 현지인과 결혼하여 상당기간을 가이드로서 활동하고 있다. 시원시원한 마스크에 입담도 화려하고 설명이 베테랑이다. 항상 생글생글 웃으며, 때로는 찡긋하며 눈웃음치는 모습이 애교가 넘친다. 이런 가이드와 여행한다면 오래 다녀도 피곤할 것 같지 않다.

스위스의 현지 가이드는 60대의 중년여성이다. 경험이 많고 지식은 풍부하나 타이이트한 일정에 많은 것을 알려주려니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였다. 순례자들의 연령이 50~60대이고 일부는 70을 넘긴 분들도 있으며,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 평생 군 생활을 한 사람이 쫓아가는 게 힘겹다고 느낄 정도이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래도 잘 걷고 잘 따라간다.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흥미와 위트로 잘 설명하는 가이드는 여행의 재미를 배가하나, 빈둥거리고 잡담이나 늘어놓고 비아냥거리는 가이드는 오히려 싫증난다. 여행사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이드를 요구해서 관철시키고 평가해야 한다. 포토존을 알려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필요하다면 서로 같이 찍는 호의와 친절도 베풀어야 한다.

유럽의 대평원은 동서남북 어디서나 지평선이 보인다. 시계(視界)를 가로막는 산이나 장애물이 없어서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이곳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다. 그 가운데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짙은 오렌지색 지붕에 벽은 흰색으로 동일하다. 집들이 소복히, 띄엄띄엄, 어느 곳은 기다랗게 늘어져 있다. 푸른 초원에 가축들이 평화스럽게 풀을 뜯고 쉬고 있다. 목가적이라는 단어는 이런 데에나 쓰는 표현인가 싶다. 고층 아파트나 빌라는 대도시의 일부지역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으니 굳이 소도시나 농촌지역에 아파트나 빌라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유럽의 가을 날씨는 참 변덕스럽다. 비가 오는가 하면 조금 지나면 해가 보이고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인다. 일기예보에 비소식이 없다가 아침에 나갈 때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우산을 챙기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한쪽에는 해가 보여도 다른 쪽은 구름으로 덮여 있다. 산이 없으니 구름도 지평선 끝에 땅과 맞닿아 있어 더 낮게 보이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여행 간 식사는 아침은 호텔식으로 하고, 점심과 저녁은 주로 현지식인 가운데 한식과 중식이 간혹 섞여 나왔다. 호텔에서 먹은 아침식사가 그중 제일 나은 것으로 보아 너무나 소박하고 검소하다. 독일에서의 트링거소세지는 접시에 순대 모양의 구운 소세지가 두 개 놓여 있고, 한쪽에는 먹서기로 간 감자가 조미료와 함께 배합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삶은 양배추와 고기가 다져진 채 육수에 적셔 있는 요리다. 맛이 없기도 했지만 느끼해서 먹기에 버거웠다. 할 수 없이 생수로 물 양치를 하고 마트에서 콜라 한 병을 사다가 입가심을 하고 나서야 겨우 진정되었다. 파리에서의 달팽이 요리도 우리의 삶은 다슬기 빼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데 딱 그렇다.

나중에 알았지만 첫날 1호차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버스가 고장이 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른 차로 교체될 때까지 무려 8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차고지가 알바니아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 40여명이 두 끼의 식사를 휴게소에서 해결해야 했으며, 유료 화장실과 식수를 추가 구매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호텔에 도착했다. 다음날에도 버스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택시로 이동하며 탐방해야 했으며, 버시기사와의 소통 미흡으로 탐방객이 버스를 찾아가야 하는 혼란이 발생하였다.

사고는 스위스 제네바역에서도 있었다. 제네바에서 T.G.V를 타고 파리에 도착하여 투숙하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가 2004년 처음으로 300km/h이상 달릴 수 있는 열차고속화 시대를 열었을 때 프랑스의 테제베를 모델로 KTX를 만들었다. 그동안 얼마나 변화되고 발전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입구에 캐리어를 보관하는 공간이 있으나 모든 캐리어를 다 수용할 수 없어 일부는 좌석으로 가져가 통로에 놓아두었다. 좌석에 앉아 석식으로 받은 햄버거와 음료수를 먹고는 겨우 한숨을 돌리며, 야간 고속열차를 타고서 파리로 입성하는 환상에 젖을 때였다.

갑자기 밖이 술렁거렸다. 열차를 운행할 수 없으니 모두 내리란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정확한 사유도 모른 채 열차에서 내렸다. 철로 변에서 캐리어를 끌어안고 있는 자체가 처량하기도 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 대합실로 이동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철도 파업과 관련된 운행 취소였다 하나 이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책임자 한 분이 나와서 통역도 없이 몇 마디하고 “I’m sorry”하고는 가버렸다. 80여명이 밤 11시에 묵을 숙소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급히 호텔을 수배하여 두 곳으로 나누어 숙소를 잡았다. 제네바역 근처는 연장자를 배려해서 먼저 숙소를 정했고, 다른 숙소는 택시 15대로 비를 뚫고 달려 도착하고 보니 새벽 1시가 넘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각자의 숙소에서 제네바역에 다시 모여 파리행 T.G.V를 탔다.

T.G.V에 대한 환상은 일거에 깡그리 사라졌다. 일부 객실은 2층도 있어서 여자분들의 캐리어를 옮겨 주는데 너무 무거워 진땀을 뻘었다. 여행객들이 매일 옷을 갈아입는 이유는 사진에 멋있게 나오기 위함도 있지만 사진에 나온 차림을 보고 날짜를 식별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밤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 역할을 침착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숙소를 잡고, 택시를 잡고, 일행을 통제해 숙소로 보내고, 다음날 다시 모여 열차에 태우는 등의 일들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시행하던 그들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앓을 곳도 부족한 역내에서 어떤 조는 동글게 모여 그날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힘든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료가 있었고, 그 속에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

유럽의 많은 궁전과 성들은 사암(sandstone)으로 지어졌다. 사암은 비교적 부드러운 돌로 조각하거나 절단하기 쉬워 건축 석재로 적합하다. 충분히 단단하며 석회암이나 화강암보다 가공하기 쉬워 균형잡힌 내구성을 가진다. 또한 모래 성분에서 노란색, 갈색, 붉은색, 심지어는 회색, 검은색까지 다양한 색상을 띄며 독특한 미관을 제공한다.

유럽의 많은 지역의 지표면에는 사암이 널리 분포해 있어 쉽게 채석할 수 있고, 수송비용이 적어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지역은 독일의 작센지역으로 드레스덴의 레지던트 궁전과 쾰른 궁전, 체코의 보헤미아 지역으로 프라하의 많은 건축물, 프랑스의 루아르 계곡으로 이 지역의 궁전들과 스트라스부르 대성당들이 대표적이다.

오스트리아로 넘어오니 이미 전체 여정의 반을 마친 셈이다. 알프스는 산이기보다는 유럽 중남부에 있는 거대한 산맥으로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에 걸쳐있다. 북쪽의 유럽대평원과 남쪽의 지중해 연안지역을 기후적, 문화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큰 하천인 라인, 뚰른, 도나우, 포강 등은 모두 알프스에서 발원한다. 오스트리아는 평균 해발고도가 2,500m로서 계절을 막론하고 산 정상에는 항상 만년설이 쌓여 있고 거기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모여 호수를 이루어 물이 맑고 깨끗할 수밖에 없다.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의 형세가 가파르고 뾰족한데

다 각가지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또한 관광객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호수에 비추인 구름, 기암절벽들, 뱃전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볕 어느 것 하나 거슬리는 것이 없다.

할슈타트 호수, 배낭여행자들이 동경하는 호수 중 최고의 반열에 올라 있다. 소문을 듣고 우연히 들렸든, 작심하고 방문했든 사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호수에 우연히 들른 여행자라면 하루 묵을 결심을 하게 되고, 하루 묵을 요량이었다면 떠남이 아쉬워 한 사나흘 주저앉게 만드는 매력을 지닌 호수다.

길옆 상점에서 일행들이 쇼핑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워낙 빠듯한 일정이라 별도의 쇼핑시간을 갖지 못한 탓에 짬을 내어 선물을 고르고 있다. 나도 두리번거리다 가이드가 옷 사는 것을 보고 하나 남은 옷을 얼른 찜했다. 내일 융프라우에 오르는데 그곳 기후가 영화 11도에 강풍이 분다는 예보다. 내가 준비해온 옷으로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황금색의 인모로 만든 털옷으로 안팎을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다. 60유로이니 약 8만 원 정도의 가격이면 괜찮아 보였다. 나중에 보니 Made in China다. 중국의 경제가 이런 오지예까지 침투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좀 씁쓸하긴 하다.

융프라우를 등정했다. 산악열차와 대형 콘돌라(26인승)를 타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했다. 변덕스러운 융프라우지만 운 좋게 쾌청한 날씨를 만났다. 영하11℃의 추위에 강풍이 몰아쳐 모자가 날아가고 사람까지 날아갈 참이다. 오스트리아에서 구매한 인모 털옷이 그나마 추위를 막아주고 있다. 집에 있는 털모자까지 가져왔더라면 좋은 세트가 될 뻔 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하다. 사진을 보니 백설에 황금색 털옷, 청바지, 빨간 모자가 앙상블을 이루고 있다.

레스토랑에서는 쿠폰으로 융프라우 VIP 패스를 구매한 여행자의 경우 무료로 라면과 뜨거운 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나는 쇼핑을 하다가 좀 늦었는데 둘러보니 라면과 물을 받기위한 줄이 길게 늘어져 있어 포기하려던 참이었다. 마침 앞에 L 목사님이 라면을 먹고 있기에 국물만 조금 맛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쿠폰 없이 취식하려면 2만 원 정도 한다니 희소가치는 있어도 좀 비싸다. 그래도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이곳에서의 한국 라면 맛있고 자랑스럽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꼽힌다. 그러나 과거에는 끔찍하게 가난했고 늘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 시달렸다. 제네바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와의 교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방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범죄자, 정치 난민, 용병, 간첩, 창녀, 빈민들로 가득했다. 그랬던 제네바는 칼빈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 모범적인 도시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칼빈의 설교를 통해 사회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스위스는 사방 어디를 봐도 아름답다. 오두막집 창가에 놓인 화분부터 설산과 빙하로부터 흘러내리는 맑은 물, 천애의 낭떠러지를 곤두박질하는 폭포, 물 보라 속을 통과하는 햇빛마저 굴절시켜 무지개를 띄우고, 그 물이 계곡을 채워 호수를 만들고 배를 띄우고 백조를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사람을 불러들이고 지상의 낙원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며 행복에 젖게 한다. <다음호에 계속>

새로운 자리에서 시작하는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새롭게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교역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자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교역자님들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되시는 주님의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뜨거운 기도와 따뜻한 격려로 교역자님들의 사역에 힘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임인사를 소개합니다. **함글함글**



안녕하세요 청년부 총괄목사이자 딸, 딸, 딸 세 딸의 아빠인 박성철 목사입니다. 저는 충신교회, 경기중앙교회, 장석교회에서 사역하고 올 해 주님의교회 청년부 총괄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25년 전 함께 예배드리던 초등학교생들이 어느덧 자라나 30대 후반이 되었고, 최근 10년 동안 함께 예배드려온 중·고등학생들이 자라나 20대 청년이 되어 주님의교회는 처음이지만 주님의교회에서 만나는 청년들에게는 친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님의교회 청년들의 삶과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청년부를 위해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박성철 목사



안녕하세요! 2025년 7교구를 섬기게 된 이태욱 목사입니다. 저는 2016~2017년 주님의교회 젊은이교구(당시 10교구) 교육전도사로 사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를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의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시고, 저와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주님의교회와 성도님을 섬기겠습니다.

이태욱 목사



샬롬! 여러분의 신앙여정에 새로이 동행하게 된 채모세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부터 닷을 올린 1교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1교구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특별한 교구로서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를 위해 힘써 오신 분들이 모이는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신앙과 삶을 지닌 시니어 여러분과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뿐 아니라 미디어관리위원회와 (사)섬김과나눔의 사역에도 함께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채모세 목사



샬롬! 저는 이번에 2교구와 찬양 사역을 감당하게 된 조연상 목사입니다. 제 이름을 연말 시상식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님의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 것처럼, 제 인생의 주연은 예수님, 저는 주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조연이 되고픈 남우조연상입니다.

청년 때부터 익히 알던 좋은 교회, 주님의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성도가 세운다는 말이 있는데요,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며 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연상 목사



안녕하세요~ 청소년숲 총괄 목사로 오게 된 방윤주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통틀어 말씀 한 절을 고백한다면 잠언 16장 9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 중, 주님의교회 청소년숲으로 오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닌, 삶 속에서 실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교제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또한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다음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 참 자유와 생명을 소유한 자 되도록 돕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방윤주 목사



제가 오래 전 회사를 다닐 때 저희 팀에 친한 여자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동료들이(한 명은 빙스를, 한 명은 투썸플레이스를 런칭한 친구들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언니는 우리 회사 계시기 아까운 것 같아요. 명품 회사가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서는 이 동생들의 말을 25년 후에 명품 회사가 아닌 명품 교회인 주님의교회로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주셨습니다. 앞으로 명품 교회인 주님의교회에서 명품 성도님들과 명품 신앙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수 전도사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6



저는 큐티사역과 가정사역을 함께 하게 된 이영원 전도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통독 수련회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극동방송에 입사해서 방송선교사역을 감당하였고, 서른에 다 음세대 신앙 전수에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제가 주님의교회 지원하게 된 동기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라는 점과 가정이 신앙의 주체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오늘 하루'가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영원 전도사



샬롬! 올 해부터 청소년부 중등부를 섬기게 된 붉을 주! 기릴 찬! 날릴 양! 주찬양 전도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기리고 높이 흠날리라는 이름을 가진 저는 앞으로 주님의교회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와 삶에 자리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기리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청소년 시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찾아가길 소망하며 그들과 울고 웃으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교회 청소년부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며 제가 부르심의 자리를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찬양 전도사



샬롬! 소년부와 어와나 T&T를 담당하게 된 유소년부 신다윗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님의교회에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사역지와 환경 속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 때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훌륭한 교역자분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며 제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제게 큰 웃음과 기쁨을 줍니다. 이러한 만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사역을 통해 더욱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다윗 전도사



안녕하세요!! 주님의교회 청소년부 고등부를 섬기게 된 박유진 전도사입니다.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귀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이 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진 전도사



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소그룹분과와 젊은이분과를 섬기게 된 전도사 박정민입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들어왔던 '주님의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교회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교회에 부임을 하고 2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송구영신 예배, 주일 예배, 신년 특별새벽기도회에 함께 하며 교회 이름답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함께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정민 전도사



안녕하세요. 주님의교회 청년부 사역을 맡게 된 정지명 전도사입니다. 먼저, 주님의교회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할 기회를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참 좋은 교회인 주님의교회 청년부를 섬기게 되어 큰 책임감과 기쁨을 느낍니다. 교회와 세상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세대인 청년부에서,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동역할 날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지명 전도사



샬롬! 주님의교회 초등1부를 섬기게 된 유의진입니다. 제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땅한 보배라는 한자 뜻과 예수님처럼 의롭고 진실하게라는 한글 뜻이 있는데요. 제 이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교회에 마땅한 보배가 되고 싶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세상에 의롭게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교회 다음세대 아이들에게 진실되게 다가가고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며 웃고 함께 울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매 순간 진실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진 전도사

청년부
연탄봉사사역

연탄 하나하나에 담은 마음과 소망

안녕하세요 청년부 30기 하희준입니다. 저는 “연탄 봉사 많이 해봤을 것 같아”라는 칭찬(?), 기대(?)를 많이 받은 것과 달리 이번에 사랑나눔팀에서 나간 연탄 봉사가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기대와 결단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고, “이번 주 토요일에 뭐 없는데 해보아야지..!”하고 느긋하게 신청했던 연탄 봉사에서 주님은 제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양재대로 너머로 가본 적이 없었던 저는 그곳에 합판과 목재로 지어진 수많은 집들이 형성되어있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시절 목재로 무대 건축을 해본 저로서는, 그 집들이 여러 귀한 생명을 품기에는 너무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따스한 겨울을 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탄을 날랐습니다. 연탄을 나르던 중, 저는 현장 일을 할 때의 경험을 떠올려 일렬로 서서 컨베이어벨트처럼 옮기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연탄나눔팀장님께서서는 일일이 나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섬김은 효율이 아니라 나아감과 접촉이구나”하고 느꼈습니다. 단지 효율적으로 연탄을 옮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

탄 하나하나에 나의 마음과 소망을 담은 것이 진정 섬김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번 봉사로 내가 살아가는 따뜻하고 평안한 터전 바로 옆에서 추위와 싸우는 어르신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터전이 보장되지 않아 투쟁 중인 분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섬김은 멀리 있는 이들을 위한 후원, 환경을 위한 기금 등 저의 지갑을 열어 행하는 후원의 개념이었는데 사실은 너무나도 가까이에 나의 섬김이 닿을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거저 주어진 것들을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였고, 나아감과 그것이 진정으로 닿을 때 섬김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_ 마태복음 10:42

나눔과 섬김의 의미를 더욱 알게 하시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마태복음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웃에게 직접 나아가 사랑을 전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희준 청년 / 청년부



어와나
바이블퀴즈대회

어와나 서울-강원지역 성경퀴즈대회

2025년 1월 11일 신림동 왕성교회에서 어와나 서울-강원지역 성경퀴즈대회가 열렸습니다. 어와나 성경퀴즈대회는 1회 지역별로 개최되며 같은 과정에 있는 클럽원들이 필기시험, 객관식 문제, 스피드 문제 등으로 1년 동안 암송하고 공부한 핸드북의 내용을 점점받는 시간입니다. 주님의교회 스팅스(Sparks, 만 6세 ~ 초등 2학년(만 8세))는 1학년 2명, 2학년 7명 총 9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개

를 수상했으며, 티앤티(T&T, 초등 3학년 ~ 6학년)는 3학년 3명, 4학년 2명, 5학년 2명, 6학년 2명 총 9명이 참가하여 모두가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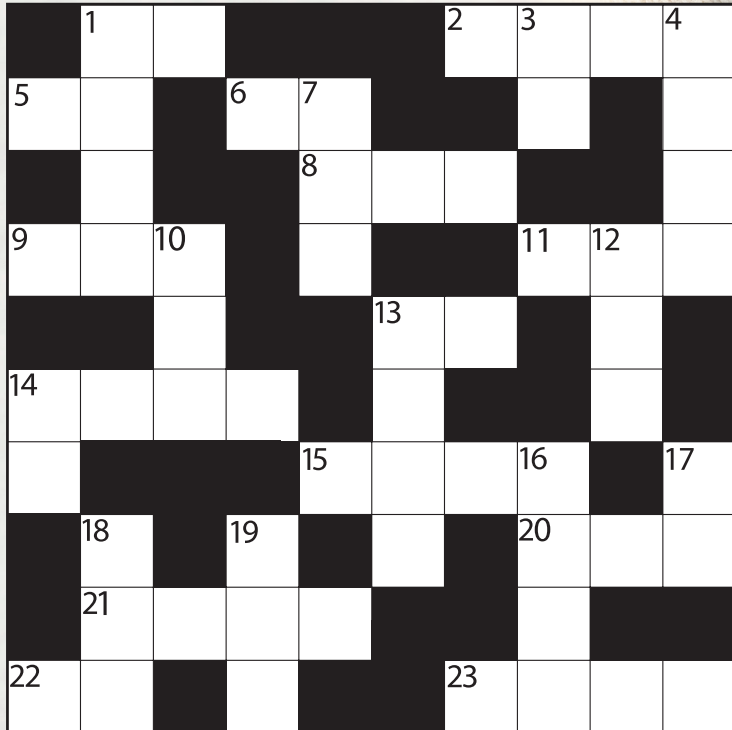
이번 퀴즈대회에서는 6학년 송태균, 허가영 어린이가 티앤티 전 과정을 한번에 암송하는 멀티플 복습을 완성하여 수상하였습니다.

정지영 집사 / 어와나 티앤티 디렉터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스가랴 편

이번 호는 <스가랴> 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선지자 스가랴가 성전 건축 독려와 함께 메시아의 임재를 예언하는 소 선지서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94호 '학개' 편 정답



가로 힌트

- 고대 지중해 연안에 있던 해안 도시. 국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다. (속 9:2)
- 대제사장. 바벨론 포로 귀환 후의 대제사장이었다. (속 3:1)
- 여러 가지, 여러 곳을 골고루. "우리가 땅에 ○○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속 1:11)
- 높낮이가 없이 편평한 지역. 산으로 이루어진 산지의 반대말로도 쓰인다. (속 4:7)
- 바벨론 포로 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 중 하나. 뒤에 여호와와 전에 기념되었다. (속 6:10)
- 바사과 바벨론의 왕. 이 왕의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와 말씀이 임했다. (속 1:1)
-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 유다 지파와 단 지파 사이의 국경 지대에 있었다. (속 9:5)
- 집 없이 떠돌아다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주로 창문에 쓰이며 투명하고 깨지기 쉬운 광물의 이름과 같다. (속 10:2)
-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하나. 이들의 지파가 거하던 지역은 후에 '사마리아' 라고 불리게 되었다. (속 9:10)
- 주로 금속 가공하는 일을 하는 기술자. 쇠를 달구고 망치질하여 칼과 낫 같은 기물을 만들었다. (속 1:20)
- 바벨론 유배 이후 유다 종교력에서 11번째 달의 이름. 현대 달력으로는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이다. (속 1:7)
-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허락한 동편 경계선이다. (속 9:10)
- 어느 곳이나 때에 닿을.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지라" (속 14:5)
-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지역 사람. 원래 '루스라는 지명이었으나 야곱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여로보암 이후 이곳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았다. (속 7:2)

세로 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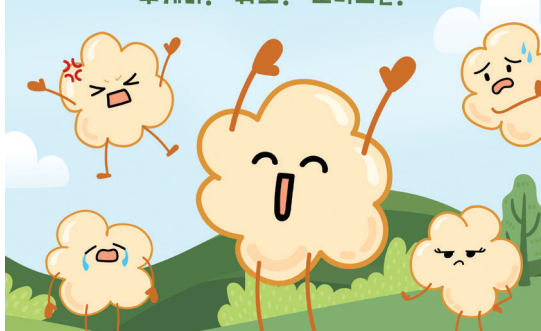
- 길게 이어진 종이나 천을 둥글게 말아 놓은 것. 고대 성서는 주로 양피지 등으로 만든 이것에 기록되었다. (속 5:1)
-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며 지키는 일. 옛날에는 주로 군인이 맡았으며, 현대에도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 있다. (속 9:15)
- 고대 지중해 연안에 있던 블레셋의 주요 도시. 사사시대에 유다 지파가 이곳을 차지했다. (속 9:5)
- 여러 사람을 이끄는 지위에 있는 사람. 훌륭한 지도자는 방향을 제대로 인도하고, 각자 제몫을 다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낼도록 한다. (속 12:6)
- 어떤 상황에 대하여 놀라움이나 깨달음, 공감을 드러내는 감탄사. 옛날 '호호통재라'로 쓰였던 감탄사를 줄여서 이렇게 썼다고 전한다. (속 2:6)
- 불길에 걸만 약간 탄. 속까지 다 타지는 않고 거뭇하게 표면만 변한 상태를 말한다. (속 3:2)
- 유다 민족의 전통적인 장막. 전통적인 주거 형태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특히 성막을 의미하기도 한다. (속 12:7)
- 구약 시대의 도량형 중 하나. 대개 밀이나 보리와 같은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로, 이것을 담아서 측정하는 용기를 의미하기도 했다. (속 5:6)
- 야곱이 압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 얻은 다른 이름. 이후 야곱의 후예로 이루어진 민족의 이름이 되었다. (속 1:19)
- 사월과 유월 사이에 있는 달. 현대 한국에서는 이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속 7:3)
- 지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을.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속 2:12)
- 고대 유다 지역에 성행했던 우상.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거나 점치는 일에 사용되었다. (속 10:2)

광고

2025 주님의교회 팍콘트리 중등부 겨울캠프

팍콘이와 투위스트

투게더! 외로! 코너스톤!



1월 24일(금) - 26일(주일), 주님의교회
문의 : 서윤아 선생님 / 010-6760-1210

2025 유소년부 겨울성경학교

2월 15일(토)~16일(주일)

주제 FRIEND MESSENGER (롬 10:15)
대상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및 새친구
장소 주님의교회 각 예배실

주님의교회 유소년부

2025 PCL 청년부 겨울수련회

DIRECT MESSENGER 복전자

"복전자"가 되기 위한 각성의 시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1)

2025.02.07 (금) - 02.09 (주일)
주님의교회

01월 31일

수련회를 여는

기도회



8PM, B1 사랑나무실

교회일정

- 1/19(주일), 26(주일) 신임서리집사 교육
1/22 (수) 4/4분기 제직회
2/2 (주일) 제직수련회
2/5 (수) 교구연합 수요기도회(4교구), 공동의회
2/8 (토)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알립니다

- 청소년부 중등부 겨울캠프**
기간 : 1/24(금) ~26(주일)
장소 : 주님의교회
주제 : 팍콘이와 투위스트(눅 4:18~19)
문의 : 주찬양 전도사(010.3389.0675)
- 청년부 겨울수련회**
기간 : 2/7(금) ~9(주일)
장소 : 주님의교회 중예배실
주제 : Direct Messenger(복·전·자)
강사 : 김영원 교수(장신대 조직신학)
신청 : 예배 전후 데스크, 주보 내 QR코드
문의 : 이민석 회장
-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
일시 : 2025/1/12(주일)부터 발급
방법 : ① 홈페이지 직접 발급(온라인 기부금 납입증명서)
② 홈페이지 발급 신청
③ 사무실 직접 방문 접수(전화신청 불가)
문의 : 임미숙 감사(02.416.5181)

모집합니다

- 주방봉사자**
시간 : 주일 12시~2시
문의 : 신형섭 장로(010.5628.7957)
- 호산나 찬양대**
시간 : 1부 예배
문의 : 김성배 안수집사(010.3656.7559)
- 유소년부 예배 반주자**
문의 : 이상훈 목사(010.9808.4788)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미가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나

시편 34:15-17

여호와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예레미야 29:1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494호 십자말풀이 정답자

최민기 집사(2교구), 정석훈 집사(8교구), 이신숙 집사(7교구), 안남희 집사(2교구)

십자말풀이와 함글함글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풀이는 함글함글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글함글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